

코트라의 깊은 뜻



김승호의
시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에서 '스타트업'이라는 단어가 소리소문없이 사라졌다. 내막을 살펴보니 중소기업청을 문재인 정부가 장관급으로 격상해 만든 조직이다.

코트라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중기부는 산자부 외청인 중소기업청을 문재인 정부가 장관급으로 격상해 만든 조직이다.

동생(중기부)이 아젠다로 가져가고 있는 창업기업, 즉 스타트업 이슈를 형(산업부)이 돈과 사람을 들여 도와줄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섰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스타트업으로 엮이다간 차치 조직이 산업부에서 중기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감이 코트라 내부에 엄습한 것이다. 여기엔 '산피아(산업부+마피아)'의 의지도 담겼다.

앞서 코트라는 중소기업본부내 글로벌일자리실에 '스타트업지원팀'을 꾸렸

었다. 스타트업지원팀은 한국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 해외 투자유치, 세계적인 기업들과의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등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는 전 세계 85개국에 총 131곳의 해외무역관을 두고 있는 등 탄탄한 글로벌 조직을 갖춘 코트라만이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코트라의 해외 네트워크는 전 세계에 15개 지부를 두고 있는 한국무역협회를 능가하는 것은 물론이다.

중기부 산하인 중소기업진흥공단도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를 16개국, 26곳에 두고 있지만 코트라와 비할바가 아니다. 물론 173곳에 재외공관을 두고 있는 외교부와 이들 기관의 역할은 전혀 다르다.

그런데 어느날 코트라가 스타트업지원팀을 없앴다. 지금은 중소기업본부 수출기업실 중소기업혁신팀에서 일부 직원이 스타트업 관련 업무를 할 정도로 조직이 크게 축소됐다.

코트라가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플랫폼 역할을 하기위해 야심차게 진행했던 '이노게이트' 행사 역시 팀 해체와 동시에 2022년을 끝으로 사라졌다.

코트라 안팎 사정을 잘 아는 한 인사는 "전임 이영 중기부 장관 시절 코트라를 놓고 산하기관 조정 이슈가 다시 한번 대두됐다. 그때 코트라 내부에서 중기부가 하는 스타트업을 도와 줄 필요가 없다는 기류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또다른 인사는 "코트라는 60년대식 체제를 고수할 것이 아니라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수출·해외 진출기업을 위해 법률 서비스, 금융지원, 회계, 세무, 노무, 인력 등을 전방위로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한국 중소기업판로지원공사'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오갔었지만 추가 진전 없이 폐기되기도 했다.

대통령 탄핵 결정을 위한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대한민국 내수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는 현실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는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을 위한 해안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bada@metroseoul.co.kr

대체거래소, 규제 완화·제도 개선 필요



김대환
(자본시장부)

국내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가 지난 4일 출범했다. 68년간 이어져 온 한국거래소 독점 시대를 끝내며 투자자들에게 큰 기대감을 줬지만, 여전히 규제의 족쇄에 갇혀 있어 그 잠재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대체거래소의 시장 점유율은 15%로 제한돼 있다. 미국의 대체거래소는 전체 주식 거래의 40% 이상, 일본은 2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 대체거래소는 경쟁이 활발히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15% 점유율 제한은 대체거래소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대체거래소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해야 자금 조달 및 서비스 개선이 가능한데, 15%라는 인위적 상한선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 거래량이 제한되면 유동성이 낮아지고, 이는 결국 투자자들의 의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대체거래소에서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한정된다는 점도 큰 문제다. 해외 대체거래소는 ETF, 파생상품,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취급하면서 시장의 다변화와 투자자 선택권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반면, 국내 대체거래소는 상장주식 외에는 취급이 불가능해, 경쟁력이 제한되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투자 기회를 얻기 어려운 셈이다.

여기에 더해 대체거래소의 시장 감시 역할마저 한국거래소가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경쟁 관계에 있는 기관이 대체거래소의 거래와 운영 상황을 감시하고 규제한다는 것은 이해상충의 소지가 크다. 대체거래소가 공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시장 감시 기구가 필요하지만, 현재의 구조에서는 대체거래소가 한국거래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대체거래소의 성공은 규제 개선에 달려 있다. 인위적인 시장 점유율 제한을 없애고, 다양한 금융상품 거래를 허용하며, 독립적인 시장 감시 기구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대체거래소는 단순히 한국거래소의 보조 수단이나, 주식시장의 경쟁 구도를 강화하고 투자자 중심의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 도구가 돼야 한다. 대체거래소가 진정한 경쟁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규제와 제도의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kdh@

오늘의 운세 3월 10일 (음 2월 11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격한 말로 서로를 지치게 한다. 48년생 한밤중에 비단옷 입고 배회하는 격. 60년생 새 소식을 듣고 문에서 횡령. 72년생 광기와 천재성 사이의 거리는 오직 성공으로 측정. 84년생 순풍에 돛단배 가듯이 순조로운 하루.



37년생 못지 않으려면 장사를 접어라. 49년생 독단적인 처리가 발목을 잡는다. 61년생 부업수리를 하니 새로운 기운이 향상. 73년생 마음을 정결히 하고 원하는 바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85년생 가진 것이 없으니 가족도 부담된다.



38년생 당장 고쳐야 할 것을 방치해서 곤란을 겪는다. 50년생 남의 눈에 티끌만 보지 말고 자신의 잘못도 생각해보라. 62년생 본래는 공정하게. 74년생 취직이 싫다면 자격증 시대이니 기술을 배우도록. 86년생 활짝 가슴을 펴고 살라.



39년생 결혼은 돌이 하는 거지만 인생은 결국 혼자 가는 길. 51년생 조상제사에 꼭 참석. 63년생 하나를 얻으려고 셋을 포기하는 격. 75년생 고인 물은 흘러보내야 썩지 않는다. 87년생 재혼한 배우자에게 최소한의 노력은 해줘야.



40년생 친척과의 대화가 근심을 가져온다. 52년생 주머니 속 송곳처럼 창의력이 빛을 발한다. 64년생 간발의 차이로 천국과 지옥을 넘나든다. 76년생 내자대로 남을 평가하는 것은 나의 이기심. 88년생 거짓말도 변명거리가 필요하다.



41년생 규칙적인 운동과 즐거운 마음으로 건강을 챙기자. 53년생 망설이지 말고 집안을 수리하여 깨끗하게. 65년생 향기 없는 꽃에 속지 마라. 77년생 잃을 것이 없으니 두려울 것도 없다. 89년생 도장 찍을 일이 있다면 다시 상의.



42년생 휴식이 없는 인생이 서글프다. 54년생 골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법이니 희망에 차자. 66년생 헛된 욕심으로 가족을 괴롭히지 마라. 78년생 오후에 음주하려면 차는 가져가지 말도록. 90년생 앞면 이가 빠진 것처럼 일이 풀린다.



43년생 새 소식이 문전에서 바로 온다. 55년생 대목장 집에 기둥이 휘었다더니 자기 주변부터 살피라. 67년생 물이 들어오니 노를 할것 저어라. 79년생 우기지 말고 생각을 바꾸면 길이 보인다. 91년생 이제라도 적금을 하나 들어보자.



44년생 꽃피고 새가 지저귀니 이제 행동할 때이다. 56년생 시험장소는 정동쪽만 피하고 움직여보라. 68년생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가정에 충실. 80년생 하던 일이 성과를 내서 명예가 높아진다. 92년생 늦지 않았으니 두드리면 열린다.



45년생 이성간에 지나친 관심은 상대를 지치게 한다. 57년생 날이 항상 맑지만 바라지 마라. 69년생 가보지 못한 길에 그리움이 쌓인다. 81년생 기도를 하면 두려움이 용기로 변한다. 93년생 큰 매대 건을 포기하기 하니 마음은 편하다.



46년생 돈 자랑 말고 나누는 미덕도 함께 했으면. 58년생 오랜 적인이 드디어 내게로 돌아온다. 70년생 세상에 나쁘지만 한 일은 없다. 82년생 레일을 벗어난 기차는 폭주하거나 지체만 당하는 이치. 94년생 사람만으로 어찌 살 수가 있겠는가.



47년생 낙수물에 바위가 풀리니. 59년생 남의 것을 욕심내면 내 것이 2배로 나간다. 71년생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83년생 버틸 수 있으니 아직 희망은 있다. 95년생 로또를 사시지 당첨기회가 오듯 실력을 키워야만 기회가 올 텐데.



김상회의四季 속성기도

우리의 '빨리빨리' 정신이 고속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다. 기도로도 그러하다. '속성기도'라는 말도 있으니 말이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사찰이나 암자에서는 연례행사처럼 하는 기도 발원 중에 학업성취 기도가 있다. 특히 수능 백일 전부터 고3 수험생들을 둔 엄마들은 수험생 자녀를 위해 너도나도 학업성취기도 발원에 매진한다. 불교 쪽뿐만 아니라 교회나 성당에서도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들이 있다고 하는데, 시험을 앞둔 백일 전부터의 기도도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일생일대의 시험을 앞두고 백일기도는 좀 염치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 애만 경쟁에서 이기라고 하는 기도처럼 비칠 수도 있다.

물론 기도의 의미가 반드시 나만 잘되자고 하기보다는 심신의 평안을 유도하고 아이가 노력한 만큼의 결실이라도 발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지만 말이다. 수험생기도는 대부분 엄마가 대신한다. 모태에 품어 낳은 자식이니 아무래도 염력의 소통이 높다. 이것이 엄마의 힘이다. 맹모삼천지교나 한석봉 어머니의 일화만 보더라도 아이들 교육엔 엄마의 입김이 크다. 기도 현장에 아버지는 없고 운동 엄마나 할머니가 주인 이유다. 필자가 주석하고 있는 월광사에서 각자의 소원성취를 위해 기도 목표를 정하고 그 성취를 위해 성심을 다하고 있지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다. 빨리 이루어지는 속성기도의 전제는 평상시에도 마음을 모으는 하루 삼배라도 하라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자기 전 삼배를 습관화 해보기를 신도분들에게 권했다. 살다가 급작스러운 경우를 당했을 때에야 마음이 저절로 급해지니 그럴 때는 속성기도를 하지 않으려야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수험생을 위한 기도는 삼년 전부터라도 작정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열대매출 증가비율
http://www.argo9.com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X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2	7	4	9	1	
					3
1			2		6
	3	4			
	1	8	2	3	
		1	5		
4			8		2
8					
5	1	7	4	8	

2	3	4		1	
		8		2	
1		6			4
		9		5	
5		1	8		6
	3		5		
7			9		3
	9		2		
2		1	8		7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열대매출 증가비율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6	8	7	2	9	1	2	9	8
1	8	9	7	2	6	2	8	
2	9	2	8	6	9	1	7	
7	2	9	1	8	6	2		
2	9	8	2	6	8	1	7	9
8	6	1	9	7	2	8	9	2
9	2	6	8	2	9	7	8	1
8	7	2	1	9	9	8	6	
9	1	8	6	8	7	2	9	

2	6	8	9	1	8	9	2	7
1	7	9	2	8	2	9	6	8
8	9	2	6	9	7	8	1	2
9	2	7	9	2	1	8	6	
8	2	7	9	2	1	8	6	
9	8	6	8	2	1	2	7	9
2	8	1	2	9	6	9	1	
7	2	1	6	8	7	2	9	
6	1	9	2	7	9	8	2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626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30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